

세계 최대 교통관련 학술행사 제89차 TRB 연례회의



박 상 우 | 정회원 ·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통분야 학술행사인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TRB)의 연례 회의가 올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에 걸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600여개의 분과에서 3,700여편의 학술 논문 발표가 펼쳐진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회의 개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통관련 학술 행사인 TRB(Transportation Research Board)의 제 89 차 연례 학술회의가 2010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도로 및 교통을 총괄하는 총 35개의 주제를 가지고 600여개의 분과회의를 통해 워싱턴 시내의 3개 호텔에서 약 3,7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동시에 교통 관련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매우 많은 양의 논문이 발표되지만 발표 논문으로 채택되는 과정은 상당히 엄정하다. TRB는 매년 7월 말까지 차년도 TRB 연례회의에 발표된 논문을 접수 받는다. 논문발표를 위한 논문 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접수된 논문의 50%가 논문발표의 기회를 얻고, 약 25%의 논문이 TRR(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의 저널을 통해 게재되고 있다. TRB에 최종 선정된 논문들은 직접 발표와 포스터 발표를 통해 청중과 공유하게 되는데, 일정과 장소의 문제로 점차 포스터 발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자가 직접 발표를 선호하긴 하지만 포스터 발표의 경우 자신의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더 오랜 시간 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기도 하다.

TRB의 연례회의는 단순히 학술발표회를 넘어서 분과별 위원회의 일년 활동 보고, 주제별 워크숍, 기술분야의 전시회, 취업 기회 그리고 같은 분야 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한 정보 교류의 장까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2. TRB 35개 주제

- AICP Certification Maintenance Session
- Aviation
- Bituminous Materials
- Concrete Materials
- Construction

- Data and Information Systems
- Design
- Energy and Climate Change
- Environment
- Freight Systems
- Geology and Earth Materials
- Infrastructure Preservation
- International Activities
- Legal Resources
- Investing in Our Transportation Future - BOLD Ideas to Meet BIG Challenges
- Maintenance
- Management and Leadership
- Marine
- Operations
- Pavement Management
- Pedestrians and Cycles
- Public Transportation and Ferries
- Rail
- Research and Education
- Safety
- Security
-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Issues
- Soil Mechanics
- Structures
- Systems Planning, Policy, and Process
- Taxation and Finance
- Transportation Policy
- Travel Analysis Methods
- Trucking
- Users

3. 논문심사 기준

TRB는 다음과 같은 14가지의 논문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각 항목별로 1~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 | | |
|-------------------|---------------|
| • 연구목적의 적절성 및 명확도 | • 독창성 및 시의적절성 |
| • 새로운 연구 접근방법 | • 정책적 활용성 |
| • 자료의 신뢰성 | • 학술적 활용성 |
| • 결론의 타당성 | • 연구의 잠재적 가치 |
| • 기존 연구 고찰 | • 논문의 구성 |
| • 연구과정의 합리적 기술 | • 논문 초록의 간결성 |
| •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 • 연구내용의 표현력 |

4. 워크숍 및 교통 관련 전시회

TRB 연례회의에서는 각 분과별 학술회의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 기회를 제공하는 많은 워크숍이 개최됨으로써 분야별 연구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알차게 짜여진 프로그램과 참가자들의 열성적인 참여도는 하루종일 쉴 새 없이 각 분과회의장을 들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 또한 저녁 식사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들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매년 TRB 연례회의 기간 중에 미국에 있는 한국인 교통 및 도로학자들의 모임인 KOTAA(Korea Transportation Association in America)의 연례회의가 열려 한국 교통 및 도로학자들 간의 인적·학술적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5. 맺음말

매년 TRB 연례회의에서 한국인이 발표하는 논문의 수는 증가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TRB 연례회의는 발표논문 심사에 있어서 앞에서 제시한 14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책적·기술적 활용성이나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논문의 발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도로 관련 사업이나 기술들에 대한 논문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고 소개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세계적으로 정보의 교류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적 발전이 균등해지면서 세계 도로 연구에 대한 국내 도로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논문발표와 참여가 더욱 요구된다.